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신부의 재현

박진훈

I

식민주의 과오를 폭로하려는 반제국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연 비평가는 사이드(E. Said)이다. 그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서방국가(제국주의)의 동양관이 자신들을 남성적인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주체(subject)로 보고, 동방(the Orient)이나 비서부 지역을 여성적인 타자(the Other)로 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207-08). 제국주의 국가를 남성(영국)으로, 식민지 국가를 여성(아일랜드)으로 상징하는 것은 조이스(James Joyce)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도 잘 나타나 있다(197-98).

사이드는 또한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론적이며 인식론적인(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구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2). 즉 동방은 유럽의 발명품이며, 유럽인에게 단지 낭만, 이국적 존재, 놀라운 경험의 장소로 인식되어온 것이다(Ashcroft *et al.* 87). 그래서 오리엔탈리스트라고 자처하는 유럽인들의 시각은 인종차별적이고, 제국주의적이며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적이다(Said 204). 제국주의의 문화와 우월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러한 시각 중에서 자민족중심주의는 『초상』에서 영국인을 아일랜드 관리(학감,

205)로 이주시켜 아일랜드의 문화 / 유산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주의의 문화를 연구하는 목적은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식민지에 각인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다. 왜냐하면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동방을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신이 동방[식민지]의 역사, 시간, 지리를 거의 마음먹은 대로 지배하는 유럽인이라고 느끼는”(Orientalism 86) 오만한 자들이다. 그들은 동방의 민족성(Orientalism)에 대해 변치 않는 정론(dogma)을 갖고, 동방을 문명화시킨다는 미명하에(civilizing mission) 결국 제국주의적 식민지 사관을 그대로 재현(representation)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리엔탈리스트의 텍스트에 대한 나[사이드]의 분석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흔적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동방에 대한 “본질적인” 묘사가 아니라 [유럽적 인식을] 재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Orientalism 21) 재현에 대한 서양의 기술은 동방을 “그곳” 즉 서양의 담론 안에서 보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Orientalism 22)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시각 / 상황은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 이런 후유증 중 하나는 허첸(Linda Hutcheon)의 주장대로 식민지의 정착민 /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기껏해야 오염된 탈식민적 언행(Post-coloniality)을 재현한다는 것이다(Ashcroft 140). 그래서 식민지 소설가들은 그들의 작품에 ‘식민주의 탈출’이라는 모티브를 상당히 “빈번하게”(with more regularity and frequency) 등장시키고 있다(Said 1994, 62). 이러한 모티브들은 작가의 성향에 따라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로 콘래드(Joseph Conrad)나 케어리(Joyce Cary) 같은 소설가들은 그들의 작품에 ‘식민주의 이념들’을 직접 /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김의락 62-63). 즉 식민지 작가들의 제국주의 폭로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국주의적 권위에 대해 반발적인 의식의 작용으로 억압받고 있는 ‘식민지 시대의 주체’에 대해 “재현하고 말함”(representation and speaking)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영(Robert Young)이 지적하였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적 형태의 재현은 “숨겨진 결점”(hidden flaw)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식민지 주체의 재현’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의] 재현은 지배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서구의 보호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는 더욱 분명해지나 자국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결점을 지니고 있다. 식민적 주체의 재현은 ... 입증되거나 논박되기 보다는 차라리 해체되는 것이다. (143)

이러한 식민지 주체에 대한 재현은 『초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잘 나타나 있다.

『초상』에서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재현의 형태는 피식민지인(아일랜드사람)들의 제국주의적 관념과 행동들이다. 가정교사 단테(Dante)의 옷술들에서 알 수 있듯(4), 동족 아일랜드사람들은 애국주의자와 친영파로 갈라져 싸우면서 스스로 식민지 지배를 더 쉽게 만들고 있다. 즉 이들은 제국주의적 언행 / 폭력을 스스로 재현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들은 학생인 웰즈(Wells)에게도 나타나 있다.

아일랜드라는 공간에서 제국주의적 지배 주체들(the dominant subjects)의 우월한 정형(stereotype)과 피지배 주체의 투쟁으로 대변되는 『초상』은, 제국주의의 재현이라는 모순적 담화체계(discourse system)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모순적 담화를 가장 세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피식민 주체들은 아일랜드의 종교 지도자인 신부들이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피식민지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언술(articulation) 그리고 행동까지도 그대로 답습하여 보여준다. 즉 그들은 제국주의 영국의 피지배 주체(the dominated subjects)인 아일랜드인 이면서도 여러 방면에서 의식 / 무의식 적으로 제국주의자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신부들은 특히 언술 / 육체적 폭력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타자 말살의 속성’을 명확하게 재현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국주의적 재현의 논점이 『초상』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II

당시, 아일랜드인에게 가톨릭과 신부(Father)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가 자기 전에 어머니에게 키스하는

것이 웃음거리가 될 정도였다(11). 이런 현실은 가톨릭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며 절제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그리하여 스티븐은 어머니가 키스했을 때 “그것이 옳은 일이었던가?”(Was that right? 18)하고 반문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정리마저 억압하는 것이 가톨릭의 신부들이었다.

가톨릭 신부들은 아일랜드 국민에게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아일랜드 독립 / 저항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이스의 소설들에 나타나는 신부들의 언행은 대부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모습들이다. 아일랜드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들의 언행은 특히 『더블린사람들』에 잘 나타나 있다.¹⁾ 또한 『초상』에 등장하는 교육자로서의 신부들 역시 세속적으로 타락한 인물들의 군상이다. 당시 신부들이 ‘토끼 사냥’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는 사실 또한 신부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조이스는 『율리시즈』(Ulysses)에서 영국 의회와 왕실의 폭파를 모의하였던 예수회 신부들(the jesuits) 사건을 지적하며(Warwickshire jesuits 9.754-55)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조이스의 신부들에 대한 다양한 묘사 중에서, 『초상』에 나타난 신부들의 언행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한다.

『초상』에서는 지적으로 마비되고 성직매매(simony)까지 일삼는 신부들의 제국주의적 언술이 곳곳에 재현되어 있다. 조이스는 정신적 지도자인 신부들의 이런 제국주의적 횡포가 오히려 아일랜드 독립을 방해한다는 것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지도자로서 자격 없는 성직자들의 타락상과 권위의식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합병 당시 ... 아일랜드의 주교들은 우리들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요? 주교들과 신부들이 1892년에 가톨릭 해방의 대가로 조국의 야망을 팔아먹지 않았던가요? 그들은 제단과 고해소에서 페니언 운동을 탄핵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들은

1) ① -It was that chalice he broke, ...(11); “The Sisters.” 플린(James Flynn) 신부, ② ... the four pages of Roman history...(13) ...break out of the weariness of school life ...(14); “An Encounter.” 버틀러(Butler) 신부, ③ Is he [Father Keon] a priest at all? ... he’s what you call a black sheep. (114);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키언(Keon) 신부, ④ It [Luck 16: 8-9] was a text for business men and professional men. ..., he [Father Purdon] was their spiritual accountant ...(157-58); “Grace.” 퍼든(Purdon) 신부 등.

- 또한 테렌스벨루 맥매너스의 유해를 욕되게 하지 않았던가요? (*Portrait* 38)
 그러나 그 [스티븐]은 순식간에 수단 소매의 첫 하고 스치는 소리와 찰싹하는
 회초리 소리를 들었다. (*Portrait* 53)
 - 제 예상으로는 수도원 안에서는 그걸 [카푸친 수도회의 제복] 그대로 유지
 할 것 같은데요? 스티븐이 말했다.
 - 아, 그야 물론이지, 교장이 말했다. (*Portrait* 167)

조이스는 케이스(Casey)의 입을 빌어 역사적 사건들에서 주교와 신부들이 보여준 반민족주의적인 행동들을 힐난하고 있다(38). 또한 거리에서도 항상 입고 다니는 카푸친 수도회 신부들의 제복(53)은 제국주의의 획일성(undifferentiation)과 그들의 엄격한 서열²⁾을 상징한다. 즉 수도회 / 가톨릭은 그 어떤 다른 피지배자의 사고가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 제국주의의 성역인 셈이다. 이곳에서 교황의 언어는 곧 하느님의 말씀과 법이 되는 것이며 이것에 불복종하는 사제들은 아일랜드 사회에서 종교 /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게 된다. 그래서 조이스는 파워(Arthur Power)와의 대화에서 교회세력이 아일랜드 도처에 퍼져 있어서, 지적(知的)으로 아일랜드사람들에게 그리 많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할 정도였다(65). 그만큼 교회와 신부들은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며 제국주의자의 행동을 재현하면서 타락해 가고 있었다.

물론 신부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당시 교회는 전통과 인습에 얽매어 개인적인 창의력이나 종교를 떠난 예술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는 가톨릭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위고(Victor Hugo)의 위대성을 평가절하 하는 독선적인 사제의 언술에 잘 나타나 있다: “위고는 가톨릭 교도였을 때보다 절반만쯤도 좋은 글을 쓰지 못했다”(169). 아울러 고해성사(confession) 때 신도들이 신페인 지지자(Fenian)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조차 있었다(38). 스티븐은 이런 신부들의 언행이 피식민지인의 사고를 왜곡해 과거의 역사를 변형 / 말살하는 제국주의자의 것과 같다고 인식한다. 즉 스티븐의 눈에 그들은 아일랜드인의 사고기능과 문화 /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또 다른 모습’을 재현하는 인간으로 비치게 된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신부들(피식민주의자)은 역설적으로 식민주의자의 권력을

2) Brother(수사) → Father(신부) → prefect of studies(학감) → minister(부교장, 보좌신부 215) → rector(교장) → Provincial(관구장) → general of the jesuits(총회장) → Pope(교황)의 서열로 매우 엄격한 복종의 의무가 있다(*Portrait*, 48-9 참조).

소유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반제국주의자의 담론에서 정치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문제는 신부들이 실시하였던 식민지 교육 정책이 엘리트 양성에만 중점을 둔 것이라는 데 있다. 그 연유로 식민지 국가가 독립이 된 후에도, 당시 엘리트들이 학습 / 답습하였던 제국주의적 태도들이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Ashcroft 453).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조이스는 학생(피식민자)들을 신부라는 제국주의의 칼날 아래 엮드려 있는 ‘지배와 훈육의 모르모토’일 뿐이라고 단정한 듯하다. 왜냐하면 『초상』에 묘사된 학생들은 단지 복종의 임무를 강요받는 주체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트바(Philip G. Altbach, 1971) 역시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교육은 토착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당연히 식민지적 권력의 이해에 따른 것임을 지적한다. 그 결과 교육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은 신식민지 국가는, 결국 교육에서도 선진 국가에게 종속적인 위치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Ashcroft 453-4).

이러한 제국주의적 식민 교육의 실상이, 제국주의자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신부들에게 잘 나타나 있다.

1. 아널 신부(Father Arnall)

아널 신부는 다른 어떤 신부보다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권위와 타락의 상징인 아일랜드 가톨릭을 대변하고 있다. 즉 그는 학교(Belvedere College와 Clongowes Wood College)라는 공간에서 어린학생들에게 잘못된 ‘제국주의적 권위 의식’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제국주의적 면들—오만함과 무지 그리고 권위 의식—은 다음과 같은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피정(retreat) 기간에 아널 신부가 행한 설교는 제국주의적 ‘언술의 미끄러짐’(slippage of articulation)을 보여준다(116-146). 설교 도중 졸업한 학생들을 세속의 일에 몰두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것은 (117), 그의 의식이 이미 세속적인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의 사종(last things: 죽음, 심판, 지옥, 천국)에 대한 설교 역시 세속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피정 기간 동안, 신부의 역할은 ‘어린 영혼의 구원’이라는 당연한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 타락한 성직자의 언술일 뿐이다. 이와 같은 성직자의 ‘물질성 중시’에 대해 조이스는 불륜

(Leopold Bloom)을 통해 종교를 “수지맞는 놀이”(Paying game)라고 비판하고 있다(Ulysses 8.17).

아널 신부는 피정 2일째 지옥에 대한 지루한 설교에서(120-36),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언술 역시 가톨릭이 인간의 영혼구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교단의 절대적인 교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언술은 “스티븐의 마음에 정신적인 마비 상태”(Peake 103)를 초래한다. 그의 설교는 또한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제국주의적 언술이다. 왜냐하면 식민지 주체(colonial subjects)인 제국주의자들이 피식민지 주체의 사상과 자아 정체성(self-identity)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널 신부는 성경구절 인용과 천사들에 대한 설교에서도 그의 신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직 그대의 사종만을 명심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토록 죄를 범하지 않으리로다.’ ... 이 말씀은 <전도서> 제7장 40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Portrait 116)

... 아홉 계급의 천사들, 즉 천사와 대(大)천사, 권품(權品)천사, 능품(能品)천사와 역(力)천사, 좌품(座品)천사와 주(主)천사, 지품(智品)천사와 치품(熾品)천사 등을 대동하셨나니,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하느님이시다. (Portrait 122)

그는 성경구절을 잘못 인용하기도 하고 천사들의 서열조차도 엉터리로 알고 있다. 셰이머스 딘(Seamus Deane)은 아널 신부가 인용한 구절은 <전도서>가 아니라 구약의 외경(Ecclesiasticus)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Portrait 298). 또한 아널 신부는 그가 언급한 ‘천사의 아홉 등급’에서, 세 번째 서열의 좌품천사와 네 번째 서열인 주천사의 위치가 바뀌었다. 신학의 기본적 지식인 ‘천사의 서열’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신학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와 같은 아널 신부의 파편화된 지식의 오용은 제국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오만함에서 흔히 나타나는 “편집증적인(paranoiac) 지식의 불완전성”(Bhabha 100)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아널 신부는 ‘콧물감기로 거칠어진 목소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그리스도의 성전인 ‘육체 관리’에도 불성실하여 성스러운 피정 기간에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부적합한인물이다.

그[아널 신부]는 어깨에 무거운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콧물감기로 거칠어져 있었다. (*Portrait* 116)

이러한 아널 신부의 미끄러지는 언술 / 언행들은 스티븐에게 신앙심을 보강시켜 줄 수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그의 설교는 스티븐에게 세속화된 가톨릭교의 전통 / 인습에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그들의 신을 거부(I will not serve. 126, 260)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있을 뿐이다.

둘째, 아널 신부는 수학생간에 클론고우즈 우드 칼리지 학생들에게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자연스럽게 주입한다. 그는 수학생간에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산수 문제를 칠판에 쓴 후, 학생들을 요크(York)가와 랭커스터(Lancaster)가로 나누어 문제를 풀게 한다(8). 피식민지 학생들을 제국주의 / 영국의 왕가로 나누는 그의 술책은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피식민자에게 주입시키려는 제국주의적 우월의식을 스스럼없이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하얀 장미’와 ‘붉은 장미’ 배지를 달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은 게임 / 놀이를 통하여 제국주의 영국의 역사를 친근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이다. 아널 신부의 이러한 수업방식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식민지 현실을 망각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상실함은 물론 민족적 저항의식을 잃게 하려는 저의(底意)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슬레먼, 슈레이, 샤프(Stephen Slemon, Sara Suleri, Jenny Sharpe) 등은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들(centre / margin, self / other, coloniser / colonised)에 주목하면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저항이론에서 탈피한 ‘문화적 교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Ashcroft 86).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교환 개념은 『초상』의 학생들이 아널 신부에게 저항할 수 있는 주체세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아널 신부의 지시는 일방적인 ‘제국주의적 문화 주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아널 신부의 영국 왕조에 대한 역사 / 정치적 식민지화 주입이라는 부당한 의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풀이에 열중하고 있다. 아널 신부는 학생들에게 승리를 향한 경쟁심 / 이기심을 유발시켜 아이들이 갖춰야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피박(Gayatri Spivak 1987)의 지적처럼 교

육이라는 미명하에, 영국 역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영국왕조의 찬탈을 역사적으로도 정당한 사건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Ashcroft 339-40 참조). 아널 신부의 영국 역사에 대한 정당성 부여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언어의 정치학’적 재현이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New Zealand)라는 국가 명칭의 경우처럼, 언어 내부에 있는 힘 즉 수사법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언어의 뒤에 있는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Simon During; Ashcroft 128).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발로 조이스는 스튜어트 왕조를 “방탕한 시궁창”(the cesspool of the court of a slobbering Stuart. 253)이라고 표현하며 제국주의 역사의 정당성을 거부한다.

셋째, 아널 신부는 제국주의자의 ‘타자의 정체성 무시’를 재현하고 있다. 즉 그는 피식민자들의 정체성 회복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즉시 외면해버린다. 그는 돌란(Dolan) 신부로부터 어린 스티븐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동안 그 내막을 잘 알면서도 학생을 변호해주지 않는다. 그는 스티븐에게 이미 새 안경이 올 때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허락했었다. 그러나 그가 어린 학생을 위해서 해준 말은 단지 그의 안경이 깨졌다는 말 뿐이다(50). 이러한 언술은 어린 학생을 변호해 그 학생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스티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학생처럼 비쳐지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돌란 신부는 그의 말을 ‘스티븐이 공부하기 싫어서 일부러 안경을 깬다’거나 ‘스티븐은 성격이 침착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아이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심한 매질을 가했기 때문이다. 스티븐을 변호하기는커녕 그는 체벌 현장을 일부러 외면해버린다. 그러던 아널 신부는 돌란 신부가 나가자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들을 무척이나 상냥하고 부드럽게 지도한다(52). 아널 신부의 이러한 약삭빠르고 배신적인 행동은 파넬(Parnell)에 대한 배신을 주도하여 조이스가 ‘오만한 위선자’(pompous hypocrite)라고 낙인찍은 영국 수상 글래드스톤(William E. Gladstone, 272)의 ‘교활함’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신부는 학생들을 정의와 진리로 훈육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가 정의를 외면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는 학생에게서 등을 돌리는 배신적 행동은, 학생들을 결코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널 신부의 이러한 가치관은 학생들(피식민자들)을 대할 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제국주의적 사고를 대변한다. 즉 아널 신부는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나아가 결코 타

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려는 마음이 없는 제국주의자의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피식민자들은 애정보다는 처벌로 다스려져야 하는 열등한 존재라는 식의 제국주의적 시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피정 기간에 아널 신부는 성모 신심회(sodality of Our Blessed Lady)와 천사 신심회(sodality of the holy angels)의 회장이나 간부들에게 다른 학생들의 '신앙심을 보증하라고 강요'하는 부당성을 재현하고 있다(118). 자신의 종교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와야 하며, 신앙도 강요에 의해서 성장될 수 있다는 제국주의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즉 신앙도 힘 있는 자의 권위 /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에 빠져있는 아널 신부는, 제국주의자들이 피식민자들을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의 이런 종교적 언술은 영국이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때 아일랜드사람들에게 감자를 나눠주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라고 강요하던 그런 제국주의적 술책과 같은 맥락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아널 신부의 언행은 '힘의 논리'와 '타자의 정체성 무시'라는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믿고 따를 수 있는 학식과 도덕성이 결여된 아널 신부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의식 / 무의식적으로 제국주의의 오만 무도함과 교활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2. 돌란 신부(Father Dolan)

돌란 신부는 어린 학생에게 잔인하게 매질을 한다(49-54). 이는 당시 성직자들의 냉혹한 기질과 절대적 권위를 상징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할 때 흔히 사용하는 폭력성을 대변하고 있다. 아이들을 무섭게 다루는 돌란 신부의 매질은 잔모하메드(Abdul A. JanMohamed)가 말하는 “주도적 단계”의 제국주의자의 폭력을 암시한다(59-89). 왜냐하면 그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료적 통제와 폭력적인 힘’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들의 폭력성은 돌란 신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부들의 매정함은 잘못된 학생에게 식당에서 사흘 동안이나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일 분마다 여섯(여덟) 대씩 매질하는 것(44), 그리고 학생들의 바지를 내리고 아홉 대씩 두 번이나 불기 짝(bum)을 때리는 것(45)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학생들을 때리는 회초리 역시 일반 막대기가 아니라 고래의 뼈와 납이 든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45). 신부들의 이러한 매정함은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그릇된 우월감과 편견에 의해 빈번하게 표현되는 ‘비열한 폭력성’을 대변하는 것이다(김의락, 134 참조).

이 비열한 폭력성은 신부들뿐 아니라 스티븐의 상급생 웰즈(Wells)에게서도 나타난다. 웰즈는 힘센 상급 문법반 학생으로, 스티븐과 ‘상수리 열매 따먹기 게임’에서 계속 잃게 된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코담배 갑과 스티븐의 깡마르고 단단한 상수리 열매와 바꾸자고 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40개를 잃은 웰즈는 그를 시궁창 도랑(square ditch)에 빠뜨려버린다(11). 강한 어깨를 가진 웰즈가 연약한 스티븐을 쥐가 빠진 더러운 도랑으로 빠뜨리는 이 사건은, 영국 제국주의가 피식민자의 물질 / 재산을 강탈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폭력성을 재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코담배는 지배자 영국을, 상수리 열매는 피지배자 아일랜드를 상징하고 있다. 스티븐의 동료들은 모두 그건 참 비열한 짓(mean thing)이라고 말하지만 웰즈에게 대항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악몽과 같은 사건은 후일 스티븐의 정체성 탐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웰즈가 행한 강자의 약자 괴롭힘은, 돌란 신부의 상습적인 폭력에 비하면 단순하고 치기(稚氣)에 가까운 것이다. 돌란 신부는 클론고우즈 칼리지에서 제국주의자처럼 “잔인한 무채색의 눈으로”(cruel nocoloured eyes 56) 어린 스티븐의 손바닥을 때린다. 그의 폭력은 제국주의자의 ‘타자의 정체성 무시’를 그대로 재현하는 태도이다. 즉 돌란 신부는 자신의 ‘권력적 우월함’을 무기로 학생들에게 제국주의적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는 바바(Homi Bhabha)가 주장하는 폭력적 식민 통치를 보여준다. 즉 지배 주체[신부]는 피지배 주체[학생들]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속적인 우월성’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망상적 투사(project)로 인해, 스스로 자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편집증적 두려움이 폭력에 의한 식민 통치를 유발하는 것이다(100-01). 아울러 어린 학생의 사소한 잘못을 무섭게 처벌하는 그의 무자비함에는, 다음과 같은 부당성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돌란 신부의 무자비함은 그가 피지배 주체인 어린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 예로 스티븐의 이름을 두 번씩 물어보는 것은 (50-51) 피식민자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제국주의적 처사이며 그가 학생들에게 애정 / 관심이 없음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돌란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는 곁에 있는 아널 신부에게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는다. 이는 그가 동료들이나 어

런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에게 질문할 때 회초리로 학생의 옆구리를 찌르는 행동(50) 또한 그가 학생들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타인의 정체성은 도외시하며 오직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제국주의적 우월의식 / 아집에 빠져 있는 자이다.

— 호호, 플레밍이라고! 물론 게으름뱅이겠지. 네 눈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

(Portrait 49)

— 호호, 석탄재 깔린 길이라. 학감[돌란 신부]이 외쳤다. 난 그런 수작을 알지.

...

— 게으름뱅이 꼬마 피보 같은 놈! 학감이 소리쳤다. 안경을 썼습니다! 아이들
이 흔히 쓰는 낡은 속임수지! 당장 손 내밀어! (Portrait 51)

둘째, 돌란 신부의 폭력은 ‘피지배 개개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즉 ‘타자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제국주의의 권위적 우월성을 반영할 뿐이다. 그는 두 명의 학생이 처벌받는 실체적 진실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도 이를 묵살해 버린다. 문법 문제를 몰라서 잘못 대답한 플레밍(Fleming)과 안경이 깨져 작문을 못한 스티븐이 벌 받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즉 플레밍은 지식이 부족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스티븐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단지 시력이 매우 약해서 안경 없이는 작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스티븐은 잘못이 없는 데도 신부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돌란 신부는 식민주의자의 권위적 오만함으로 그들을 ‘똑같은 게으름뱅이’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돌란 신부가 피지배자들을 무지하고 게으르다고 단정 짓는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예이다. 그리하여 다른 학생이 “스티븐은 안경을 깨뜨려 작문을 할 수 없어요”라고 사실을 말해 주었지만, 그는 피지배계층의 ‘개개인의 실체적 진실’이나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를 도외시 해버린다. 자신의 의식 속에 제국주의자의 우월성을 각인하고 있는 신부 돌란은, 학생 스티븐을 향해 “게으른 피보”(lazy idle little loafer!, lazy idle little schemers. 50)라고 몇 번씩 질책할 뿐이다.

셋째, 돌란 신부의 체벌은 그가 학칙 / 법을 거리낌이 없이 무시 / 조롱하고 있다는 부당성을 보여준다. 그는 학칙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준법정신이 결여된 선생이다. “학생들을 때릴 때 어깨 위까지 회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규칙을 조롱이나 하듯 그는 어린 학생에게 심하게 매질을 한다. 종교 / 사회적 지도자인 신부가 제국주의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그가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오로지 힘없는 피식민자와 같은 학생들에게 제국주의자의 물리적 폭력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신부의 폭력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의식은 호미 바바의 양가성(ambivalence)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피지배 주체인 학생이 지배 주체인 자신과 학식 면에서는 같아지기를 바라면서도, 학칙 / 법 준수의 면에서는 완전히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지배 주체의 양가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86 참조).

돌란 신부는 이처럼 어린 학생들의 실존주의적 상황에 대해 애정 / 인식이 부족한 선생이다. 그럼에도 그는 학생들에게 가하는 때에 비례하여 자신의 권위가 더 올라갈 거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폭력 미화’의 식은, 피식민자에게 자신의 우월의식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려는 제국주의적 관습 / 인습일 뿐이다.

넷째, 돌란 신부의 부당성은 그가 언어폭력을 상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칙을 잘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신부가 규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매일 언어적 폭력을 쓰고 있다. 그는 학칙을 경시하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반성의 빛도 없이 학생들에게 “누구 매 맞을 사람 없느냐?”고 항상 물어보고 다닌다(49). 이 물음은 제국주의자가 피식민주체에게 행하는 대표적인 폭력적 언술이다. 이런 ‘언어적 폭력’을 답습한 돌란 신부의 물음은 피식민주체에 대한 제국주의자의 편집증적인 지식에서 발생하는 ‘언술의 미끄러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은 이러한 식민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권력과 지식의 미끄러지는 언술을, 성적을 권하는 신부에서도 발견 한다(Ashcroft 100-01 참조): “그러나 신부의 입을 통해 나온 그 말은 솔직하지 못한 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스티븐]은 신부가 그런 문제 [카푸친 수도회의 제복(*les jupes*) 폐지]에 대해 가볍게 얘기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168)

또한 “회초리로 게으름뱅이 피보를 다스리기 위해 날마다 들르겠다”는(52) 돌란 신부의 언어적 폭력은 푸코(Michel Foucault)식의 제국주의적 ‘감시와 처벌의 눈초리’를 상징한다(1979, 222-23). 이 언어적 폭력과 감시는 학생들을 지식인으로

키우고 문명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 학생들이 받는 정신적 상처를 완전히 도외시킨 것이다. 성직자인 신부가 학생들의 잘못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하지 않고 때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처신이다. 이런 까닭에 그의 감시 / 처벌의 눈초리는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고 발판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음모의 눈빛이며, 또한 지배자의 권위에 대한 반항 / 도전 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 누구 때 맞을 아이 여기 없어요? 아널 신부님? 학감이 소리쳤다. 어디 이 반에 때를 맞아야 할 빈둥거리는 게으름뱅이 없어요? (*Portrait* 49)

— ... 어떤 애가, 어떤 게으름뱅이 피보가 회초리를 필요로 하는가 보기 위해 돌란 신부는 날마다 들를 것이다. 날마다, 날마다. (*Portrait* 52)

돌란 신부의 이런 언어폭력은 어떤 면에서는 초기 오리엔탈리스트의 폭력성과 같다. 즉 오리엔탈리스트[신부]들이 정의한 허위적 사념의 잘못된 언어 / 문헌적 폭력으로 인해, 동방[학생들]이 사고와 행동의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까닭으로 『초상』에 나타나는 신부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오리엔탈리스트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폭력의 제국주의적인 면’과 피지배자의 종속성이 아일랜드 신부와 학생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돌란 신부의 편집증적 지식에 대한 언술과 행동에 대해 스티븐은 “잔인하고 부당했다”(it was unfair and cruel)고 다섯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53-54). 이러한 신부들에 대한 반발로 조이스는 아일랜드 역사에서 1798년 반란(Rebellion) 때 가톨릭교회에 방화를 즐기던 인물로 ‘성직자 사냥꾼’(hunter-priest)으로 불렸던 번체플 웨일리(Burnchapel Whaley 199)를 등장시킨 것이다.

어린 학생의 교실에서 보여준 사회 지도층 신부의 폭력적이며 교활한 행동은 제국주의자의 정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을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주면서, 제국주의의 재현에 대한 투쟁의 장(site)으로 학교를 묘사하고 있다. 신부들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담론과 언행에 대해 스티븐은 스스로 저항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스티븐이 교장을 찾아가 자신에 대한 모독과 돌란 신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었다(54-59). 알튀세르(Louis

Althusser) 역시 식민지 사회에서 사회 지배계급의 이념(ideology)이 학급에서 교사들에 의해 독선적으로 자행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념적 상황에 대한 여러 장치들이 학급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다’(147)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조이스는 『초상』에서 이미 피식민 주체에게 학급이 이념 투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묘사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티븐이 교장에게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는 모습은 신부들의 식민주의적 재현을 전복(subversion)하려는 탈식민주의적 개념으로 읽을 수 있다.

스티븐은 마침내 돌란 신부의 부당함에 대해 자신의 존재와 인격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자 교장(Conmee 신부)에게 그의 언행을 직고한다. 스티븐의 이러한 ‘자아의 정체성 찾기’는 내성적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이 제국주의를 재현하는 신부에 대해 최초로 저항하고 반항하는 태도로써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키는 순간이다. 불의에 항거하는 스티븐의 이 행동은 제국주의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이 사건은 제국주의자로 비친 신부들의 체제 / 권위에 대한 이념적 투사(ideological project)를 행동으로 전복시키려 했던 최초의 반항이다. 이런 저항의 과정을 통해 스티븐은 개인의 반항적 의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돌란 신부에게서 자신의 개성과 자존심을 수호하였으며, 이는 그가 예술가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단계가 된다(Peake 71). 또한 스티븐이 돌란 신부의 제국주의적 언행에 항의하여 승리를 거둔 것은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갔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앞서서 저항하는 몸짓을 보여주었으며 이 저항의식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의 저항의식을 단지 사고(thought)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려는 육체적 저항’(physical colonial resistance)을 대변하고 있다. 스티븐의 이런 육체적 저항은 당연히 친구들에게 환영받게 된다.

스티븐이 보여주는 또 다른 육체적 저항은 친구들의 구타사건에서도 나타난다(85-86). 스티븐은 민족주의자들로 대표되는 친구들(Heron, Nash, Boland)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다. 그는 막대기로 맞고, 매듭진 배추 뿌리로 얻어맞으며, 견어차이기도 한다. 옷이 찢기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그는 바이런(George Byron)이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고수한다. 바이런은 당시의 위선과 편견을 몹시 싫어하였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티븐의 취향에 알맞은 시인이었

다. 바이런처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스티븐은 친구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와 그들의 폭력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지만 그들 역시 폭력으로 타자를 말살하겠다는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이렇게 두 번의 '육체적 저항'을 통해 그들의 폭력성에서 벗어났으며, 자유로운 자아 추구에 더 힘을 쏟게 된다. 그러므로 스티븐의 자유로운 자아 추구는 합리적 / 비판적 정신과 개인의 자존심 회복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스티븐처럼 '합리적인 자아상 추구'를 제시하는 조이스는, 굴욕적인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제국주의적인 형태들에 대항하는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피지배주체의 자아 정체성 추구에 근원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조이스는 『초상』을 통해 식민주의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국의 편협한 민족감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이스가 스티븐을 '행동하는 양심의 주체'로 제시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에게 '상상적 동일성'(identification)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라캉(Jacques Lacan)이 주장하는 자기동일성의 표현이 봄(see)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115). 이러한 동일시 문제는 식민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초상』에서는 성직을 원하는 교장과 스티븐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 있다.

3. 교장(the rector)

교장은 스티븐의 (위장적인) 신앙심과 학구적인 태도에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스티븐에게 성직의 소명(vocation)을 고려해보라고 권한다(170). 교장의 권유는 외형적으로 부드러운 언술로 행해진다.

— 스티븐, 그와 같은 [예수회의 신부가 되는]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신부가 말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명예지. ... 하늘 나라의 천사, 혹은 대천사도, 어떤 성현이나 심지어 성모 마리아 자신까지도 하느님의 성직자가 누리는 권세를 갖지 못해: ... 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가, 스티븐! (*Portrait* 171)

이 권유는 강자로 군림하는 신부들의 권력세계로 스티븐이 기꺼이 예측되는 것이 좋을 거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스티븐은 교장의 언술에서 피식민지의 지식

인[스티븐]을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하여 그들의 권력화를 영구히 하려는 제국주의적 술책을 간파한다. 잠시 그는 상상적 동일성 속에서 신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광”과 “가장 위대한 명예”를 그려보지만, 곧 ‘신부되기’를 포기한다.

또한 교장의 “신부가 되는 것이 왕관을 쓰는 것과 같은 영광”이라고 하는 언술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먼저 신부의 신성한 명예를 세속의 왕관에 비유하는 것은 그가 권력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의미는 그가 강자와 약자의 ‘신분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이는 엄격한 서열의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이다. 그의 언술은 단지 “사상의 주체”(the subject of thought)로서 자신들의 입지만 보전하려는 제국주의적인 투사일 뿐이다. 즉 강자(the mighty)인 교장은 약자(the marginal) 중에서 똑똑한 스티븐을 자신들의 세력권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강자가 약자를 합병하려는 이런 의도는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Henry V, 1598)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영국의 헨리 5세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전쟁을 일으켜 승리한다. 이 전쟁으로 인한 불편한 사이를 해결하기 위해 헨리 5세는 프랑스 공주와 결혼하기로 한다. 이 연극은 서로의 화해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끝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은 약자가 종속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연유로 이 장면은 식민지화에 반항하는 작가에 의해 오히려 ‘내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의도라고 비판받고 있다(Ashcroft 178 참조).

위와 같이 성직을 원하는 교장의 이미지는 여러 면에서 제국주의적이다. 스티븐은 교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연히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 스티븐의 불복종은 식민지 지배자의 소망, 즉 피식민지 지식인을 자신에게 속박시키려는 소망을 전복하려는 것이다. 그가 교장의 제안을 전복하는 과정은 다음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여러 면에서 치열한 자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교장의 외형에 대한 묘사가 매우 부정적이다. 사제직을 원하는 교장이 “햇빛을 등지고 앉은 생기 없는 모습”(…his back to light, crossblind, waning, in total shadow)은 스티븐에게 제국주의적 어둠과 개인의 자유 / 생명을 거부하는 죽음의 이미지로 혐오스럽게 다가온다. 스티븐은 또 교장에게 그림자가 드리운 장면(166)이나, “북구인다운 날카로운 얼굴”(the shrewd northern face 193)의 교장이 “차양 끝을 달랑거리거나 고리 모양을 만지는 것”에서 종교적 율가미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나아가 “그림자 속에 가려진 두 눈으로 상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 ... 예수회 신부들이 지닌 교활성”(168) 등에서 스티븐이 신부를 평가하는 ‘혐오적 이미지들’을 읽고 있다.

둘째, 교장은 현실 인식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 판단력이 경솔하다. 이를 소위 르적으로 표현하면 교장은 스스로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성직의 고행(苦行)과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어두운 면들[기의]은 도외시하고, 성직수행의 영광[기표]만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장은 자신의 성직 권유와 설득이 얼마나 ‘불완전한 의미화 작용’의 투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장은 또한 스티븐의 신앙심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경솔한 신부이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신앙심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스티븐의 신앙의 본질[기의]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스티븐의 ‘위선적인 신앙심 표현’[기표]만 보고 성직을 권유하는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장의 이런 우매함은 스티븐에게 교장의 ‘내적 식민지화’(internal colonialization)를 거부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그는 신부들이 지켜야하는 수도원 생활의 냉혹함과 질서에 반발한다: “The chill and order of the life repelled him[Stephen].” (174) 이 와중에 스티븐은 그의 ‘정신적 자존심’에서 우러나는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 소외감 속에서, 스티븐은 자신의 지배자이며 종교적으로 ‘내적 식민지화’를 소망하는 교장의 권유에 대해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즉 규율을 지키며 신부로서 편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굴곡의 삶이지만 자유롭게 살 것인가로 잠시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스티븐은 곧 “예수회의, 스티븐 디덜러스 신부”(The Reverend Stephen Dedalus, S. J. 174)의 명함을 거절한다. 신부의 삶을 선택한다면 조국 아일랜드에서 자신도 역시 다른 신부들처럼 제국주의적 권위의식과 폭력성을 재현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신부의 명함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난마처럼 뒤얽힌 미로의 현실에서 모험을 하며 예술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스티븐이 규율과 자유의 기로에서 ‘개인적 자유’를 선택한 것은 푸코가 강조하는 “개인적 / 윤리적 원칙의 중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푸코가 기독교의 계율과 회람 / 로마의 도덕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술품으로 가꾸는 “한 개인적인 윤리(a personal ethics)의 원칙”이 구속적인 계율에서가 아니라 예술가의 도덕률로 나타난다고 강조하듯이(49), 스티븐은 예

술가의 도덕률로 개인적인 자유를 회구한 것이다.

여러 면에서 절망감을 느낀 스티븐은 더블린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한다. 어린 시절 스티븐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는 ‘아버지’를, 정치에서는 ‘파넬’(Parnell)을,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부’가 자아 정체성 추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결국, 스티븐으로 하여금 사제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스티븐의 눈에 신부들은 영국의 식민주의자처럼 행세하면서 피지배주체들에게 그들의 제국주의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들로 비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티븐의 ‘종교 탈출’ 의지는 제국주의적인 종교적 형식을 거부하게 한다. 그는 속박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는다: “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거야”(I shall express myself as I am. 220). 그의 정체성은 특히 아들 스티븐이 부활절에 ‘영성체 받기’를 간청하는 어머니의 소망을 확실하게 거절하게 한다(259-60). 스티븐은 그만큼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성장하였고 마침내 국가, 종교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굴레를 거부한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인 상상의 국가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를 셰이머스 딘(Seamus Deane 1994)은 아일랜드인이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지역성에서 탈피하여, 위축되지 않는 리얼리즘을 통해 본질(cosmopolitanism)로 회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9).

스티븐이 식민주의자들 / 신부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정성(authenticity)을 보전하려는 ‘자유 추구’의 노력은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그는 결국 가정과 종교에서 ‘주변적 위치’로 맴돌아야 했으며 사회생활에서의 고립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스티븐의 고립과 소외감은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즉 그는 아일랜드의 문화적 순수성 / 순정성의 신화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구속적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의 자유 추구는 또한 자신 만이라도 정치 / 경제 / 종교적 제도와 속박에 의해 균질화 되어 있는 다른 아일랜드인처럼 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스티븐은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였다.

『초상』에는 위에서 언급한 세 명의 신부 외에도,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재현하는 신부들로 테이트(Tate)와 모란(Moran)이 있다. 스티븐의 수필에서 문구 하나를 문제 삼아 스티븐을 이단(heresy)이라고 몰아붙인 테이트 교사는(83) 타자의 정체

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자의 모습이다. 또한 스티븐의 애인인 클러리(Emma Clery)와 사랑에 빠진 모란은(219, 234) 제국주의적 윤리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부이다. 즉 피식민자의 애인까지 가로챌 수 있다는 신부의 타락한 윤리관은 제국주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타락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왜냐하면 피식민자들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들의 행복 / 애인까지도 얼마든지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조이스는 『초상』에서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의도는 아일랜드 신부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교활한 방식으로 제국주의적인 언행을 재현하는 지를 폭로하는 것이다. 즉 조이스는 아일랜드 신부들의 재현을 통해 영국 제국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이스는 예수회 신부들이 지닌 교활성(craft)을 비웃었으며, 그들의 외형을 경멸적이며(Foxy Campbell 175) 일그러진 모습들로 묘사하여 신부들의 잔인성과 간사 / 교활함을 잘 표출해 내고 있다: “창백한 얼굴, 넓은 콧등, 눈 아래와 턱을 잇는 그림자, 길쭉하고 찢기 없는 얇은 미소, 어둡고 여성다운 눈 ...”(192-93). 또한 조이스는 아일랜드에 사는 영국인 대학교 학감에 대해서도 “둔하고 마비된 영혼”(A dull torpor of the soul)이라고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203).

그러나 조이스가 스티븐을 통해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와 민족주의의 편협성을 공격한다고 해서, 결코 제국주의 영국 종교(Anglican church)의 아일랜드 지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국 종교는 비논리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조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일랜드의 정신적 마비증상을 낳은 것 중에서 영국의 정치적 지배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였다.

...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조리 [아이리시 가톨릭교]를 뿌리치고, 비논리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조리 [영국의 개신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무슨 해방이 될 수 있겠어? (Portrait 26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이스는 아일랜드 신부들과 제국주의의 종교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조이스는 『초상』에서 제국주의적 권력으로 전락한 종교에 대해 비판만 하지 않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식민지 상황에서 정신적 지도자인 신부들이 추구해야 할 재현은 “신의 목적을 발견하여 이를 진심으로 재

현하여 보편화의 힘을 부여하는 것”(230-31)이다. 그러므로 신부들은 학생들에게 절대로 개인의 제국주의적 욕망을 투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재현해야 하는 것은 ‘신의 진정한 목적’을 잘 살피서 학생들에게 언행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초상』의 곳곳에서 조이스가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광휘(*Claritas*)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III

스티븐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상형으로 추구했던 신부들의 환영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는 아일랜드 신부들은 제국주의자들처럼 피지배 주체에게 폭력까지 사용하며 억압 / 속박해 버리는 그런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간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사용하였고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타자(학생들)의 개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다. 즉 신부들은 그들의 언술과 술책을 통해 의식 / 무의식적으로 제국주의적 텍스트의 ‘굴절’(refraction)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티븐은 아일랜드 신부들을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서 행하는 오만함과 교활성 및 폭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스티븐의 학창시절에 ‘제국주의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 아널, 돌란 신부, 그리고 교장은 다양한 언행으로 스티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신부들이다.

먼저 아널 신부는 학생들에게 제국주의적 언술의 미끄러짐, 제국주의적 역사관 주입, 타자의 정체성 무시, 그리고 신앙심마저 강요하는 것 등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돌란 신부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자이다. 그의 폭력성은 그가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피식민 개개인(학생들)의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적인 면을 재현한다. 그는 또한 법 / 학칙을 조롱하는 안하무인의 제국주의자처럼 어린 학생들을 언어적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신부이다. 마지막으로 교장은 신체적인 모습이 제국주의와 같은 혐오적인 이미지를 표상하는 자로 진실 파악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신부들의 이러한 언행들에 반감을 갖게 된 스티븐은 그들의 종교를 배척하고 자아의 정체성 찾기에

몰두한다.

그러므로 당시 아일랜드 사회의 지배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들은 자신을 이상적 정형으로 생각하는 제국주의자와 같은 오만함을 지녔다. 그래서 그들은 피지배주체인 학생들을 항상 자신의 정형을 따라와야 하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다. 이렇게 그들은 제국주의의 전형적 모습을 의식 / 무의식적으로 재현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언행은 스스로 자체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아일랜드 신부들이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언행을 아무리 잘 재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성(*partiality*) 때문에 오히려 제국주의적 권위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식민주의적 권위에 대한 대리인 / 모방자들인 신부들의 아이러니이다.

스티븐은 아일랜드 신부들을 타자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로 판단한다. 그는 뿌리치기 힘든 사제적 수행의 영광을 종교적 속박으로 간주하고 거절한다. 스티븐은 신부들의 제국주의적 재현을 저항하는 몸짓으로 전복한다. 마침내 자유로운 자아 정체성을 추구하던 스티븐은 자연인(예술가)으로 남기로 결심하고 현실에서 과감히 탈출한다.

(고려대)

인용 문헌

- 김의락. 『탈식민주의와 현대소설. 제3세계 문학과 영미 문학의 이해』. 자작아카데미, 1998.
- Althusser, Louis.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Books, 1971.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1997.
- Bhabha, Homi.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Deane, Seamus. "Joyce the Irishm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mes Joyce*. London: Cambridge UP, 1994.
- Foucault, Michel. *Politics, Philosophy, Culture.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7-1984*. Ed. Lawrence D. Kritzman. New York: Routledge, 1988.
- _____. *Discipline and Punish*.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1979.
- Hutcheon, Linda. 'Circling the Downspout of Empire: Post-colonialism and Post-modernism', *Ariel* 20(4): 149-75.
- JanMohamed, A, R.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ist Literature." *Critical Inquiry* 12(1), 1985.
- Lacan, Jacques.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81.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P, 1977.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London: Millington, 1974.
- Said, Edward W. *Orientalism*. London: Routledge, 1978.
- _____. *Culture and Imperialism*. London: Vintage, 1994.
- Spivak, Gayatri Chakravorty.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Methuen, 1987.
- Young, Robert.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0.

Abstract

The Presentation of the Irish Priests in *Portrait*

Jin-Hoon Park

In Joyce's age, Irish priests were regarded as the dominant subjects of society. The priests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actions and many social activities. They also were concerned with the secular affairs such as the fox hunting, materialism. In addition they had the haughtiness as the imperialist who thought of themselves as the ideal stereotype. So the Irish priests treated the young students as the inferior beings or the Others. To criticize these states quo, Joyce described the priests as the men who represented the imperial figures in *Portrait*.

In *Portrait* there are many priests(Fathers) who represent the imperial articulations and behaviors in Clongowes and in Belvedere College. Especially Father Arnall, Father Dolan, and rector showed the students their haughty and violent articulations / behaviors as the imperialists as follows.

At first, Father Arnall had the four imperial aspects in his articulations and behaviors. He represented the slippages of articulation in 'the sermon of the hell' and 'the quotation of bible'(116-46). Also he infused the Britain / imperial historical view into the students(8). And he ignored the students' identity(50), forcing the prefects and officers to set good examples to their fellow students(118).

Secondly, Father Dolan who hit the Stephen unfairly and cruelly had the four imperial aspects, too. He presented the lack of affection for the colonized students. And he didn't admit the colonized individual reality. Furthermore he held scorn in the school's law and broke the law with his haughtiness. He always enjoyed the linguistic violence to the students, too.

Finally, the rector of the college represented the imperial images. He had the disgusting images such as "waning figure, the shrewd northern face, and the craft

of jesuits.” Futhermore in spite of misunderstanding Stephen's false piety, he inducted Stephen to be a priest. Eventually he was absurd enough not to recognize the Other's identity correctly. It represented the imperial partiality of judgment.

In conclusion the Irish priests represented the typical figures of imperialism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eir articulations and behaviors, however, had the contradiction in themselves, for they were only agents and mimics of colonialist authority. Therefore the irony of the imperial representation of these priests was that on the contrary they were reducing the imperial authority because of the partiality on their representation.

■ Key words: imperialism, the dominant subject, the colonized subject, articulation, representation, the slippage of articulation, the Other's identity(제국주의, 지배적 주체, 피식민적 주체, 언술, 재현, 언술의 미끄러짐, 타자의 정체성)